OM SHIPS International
Newsletter 58
박필훈 장미애 선교사 기도소식
(2022 년 1 월 28 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 시편 121:4-8

우리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펜데믹 속에서도 우리의 우편에서 그늘이 되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이끄신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동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2022 년도에도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며 새해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기도제목 1 : 2022 년도 새해 우리의 우편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고스호프는 지금

로고스호프 선교선은 현재 아프리카 가나의 두번째 항구인 테마(Tema)에서 사역중입니다. 가나의 첫번째 항구였던 타코라디(Takoradi)에서의 시간은 선교선 사역자들 모두에게 가장 힘든 시간 중의 하나가 아니였을까 생각됩니다. 성탄과 새해를 격리와 치료로 함께 하지 못하고 현지 병원과 격리 호텔 그리고 선상의 캐빈에 흩어져 보내야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가나 질병관리청에서 적극적으로 치료와 격리를 도와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두가 회복되어 선상으로 복귀하고 마지막 5 일의 사역을 마치고 다음 항구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응답이자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도제목 2 : 로고스호프의 모든 사역자들이 더욱 강건하게 가나에서의 사역을 진행하고 승선을 준비하는 모든 신임 사역자들이 무사히 승선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단기사역자들을 위한 선교와 말씀 훈련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곳 플로렌스에서 섬기는 단기사역자들이 열 명이 되었습니다. 독일, 미국, 브라질, 콜롬비아, 스위스에서 온 10 명의 단기 사역자들은 서적을 분류하는 섬김과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모여 성경공부와 선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국적과 연령대의 봉사자들과 성경 말씀을 나누고 선교 도전을 하는 시간이 너무 보람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단기프로그램을 진행할 사역자 가정이 플로렌스 팀에 조인한 것입니다. 로고스호프에서 섬겼던 파벨, 멜리사 부부와 3 살 아들 갈렙이 선교선 사역을 마치고 이곳 플로렌스에서 단기프로그램 담당자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도제목 3 : 플로렌스에서 섬길 단기사역자들을 계속하여 보내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이 여러 섬김과 배움의 시간을 통해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 함께하는 감사한 시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에 은철이와 지윤이가 무사히 플로렌스에 도착하여 저희에게 큰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너무 오랜만인 듯한 느낌이었고 크리스마스를 네 명이 다같이 맞이한 것이 5 년만이라는 사실도 새삼스럽고 감사하였습니다. 함께 한 시간이 감사한 만큼 빠르게 흘렀습니다. 특별한 것을 하지 않아도 함께 식탁을 대하는 것 자체가 큰 감사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제목 4 : 온 가족 (박필훈 장미애 박은철 박지윤) 모두 성령충만함과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과 학업 잘 감당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제목 5 : 로고스호프의 모든 사역자들과 플로렌스의 모든 사역자 봉사자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선교 사역이 중단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제목 6 :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 참석하는 기독 선수들과 여러 스태프, 참가자들을 지켜 주셔서 안전하고 의미있는 올림픽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제목 7 : 예측하기 어려운 세계 정세와 상황 가운데 평강의 주님께서 참된 평화와 안전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미전도종족을 위한 매일 기도 링크
https://joshuaproject.net/pray/unreachedoftheday/today

Logos Hope Schedule

Port, Country	**Arrival Date**	**Departure Date**
*Tema, **Ghana***	*January 20th, 2022*	*February 23rd, 2022*

기도와 함께 동역을....

로고스 호프의 선장, 단장, 항해사, 엔지니어를 비롯한 모든 승선 사역자들과 더불어 오엠선교선 독일 및 미주 본부의 모든 사역자들
역시 선교사로 파송받아 파송 및 협력교회 그리고 기도와 재정 후원자들의 지원을 받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사랑의교회 파송선교사로 기도의 지원과 함께 물질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한 사람에 의해 진행되지 않고 여러 손길이 모여 함께 완성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고 담대하게 여러분의 동참을 요청드립니다. 기도와 더불어 아래의 후원계좌로 매월 1 만원 또는 2 만원 정기적으로 후원해 주심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지원이 아닌 일시 후원의 경우 저희에게 pilhun.park@gbaships.org 먼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정기 기도모임과 기타 문의는 아래 후원관리자님께 문자나 전화주시면 회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관리자** : 채성우 집사님 010-9131-3022 / 진미경 집사님 010-6248-9302

***후원기도모임** :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수요예배 후 당분간 온라인 기도회로 진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010-2694-6354 로 문자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후원계좌** : pilhun.park@gbaships.org 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SHIPS
INTERNATIONAL